‘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

장수군, ‘섶밭들 산골마을영화제’ 27일까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장수군이 후원하고 섶밭들 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하영택)가 주최하는 제2회 섶밭들 산골마을영화제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섶밭들 마을(장수군 천천면)에서 열린다.

영화제 개막식은 섶밭들마을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마을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화를 담은 개막작 ‘우리 마을 식당’ 상영을 시작으로, 야외스크린 외 공간여립, 논개골행복나눔터, 한누리시네마 등 총 4개 상영 공간에서 5일간 20개국 장편과 단편 37편을 상영한다.

개막식에는 국내·외 초청 손님 10여 명과 친환경(ESG)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장수군 관계자 및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막작 관람 외 공연 및 연회 등을 즐길 예정이다.

영화제에서는 출품 공모작 32편과 초청작 5편 총 37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개막작과 폐막작, 섶(Supporting), 밭(Farming), 들(Plaining), 산골(Mountain), 마을(Special) 분야로 나눠 19회차 상영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섶밭들 산골마을영화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동세상을 꿈꾼 조선시대 혁명가 정여립의 마음을 잇고자, 공존과 평등의 가치를 담은 세계 마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25가구가 모여 사는 섶밭들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영화제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며 진짜 ‘마을’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영화제 상여작 및 관람정보는 섶마들 산골마을영화제 홈페이지(http://smvff.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회 섶밭들 산골마을영화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섶밭들 산골마을영화제 사무국(010-3052-7765)으로 연락하면 된다.

섶밭들 산골마을영화제 포스터

/장수=고판호 기자

작은 영화관 기획전 무주 개최

30일까지 무주산골영화관서 5개 부문 10편 영화 총 21회 상영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작은 영화관에서 만나는 새로운 행복, ‘2023 작은 영화관 기획전_무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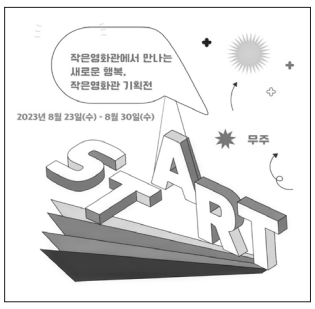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한 공모 사업에 무주군이 선정되면서 열리게 된 것으로, 23일부터 8일간 무주산골영화관에서 5개 부문 10편의 영화가 총 21회 상영된다. ‘시네마토크’, ‘관객과의 대화’ 및 영화와 연계된 4회의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영화 속에 그려진 환경과 인권, 다문화 등의 소재를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만날 수 있는 “다시 마주한 세계” 섹션에서는 〈로보카폴리와 함께 배우는 환경 이야기〉(상영 후 로보카폴리 환경 놀이터 진행)를 비롯해 〈스톰보이〉(상영 후 시네마토크 진행), 〈종〉(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진행), 〈플레이그라운드〉(상영 후 시네마토크 진행)가 상영되며 사랑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아낸 영화로 구성한 “사랑의 시선” 섹션에서는 〈해시태그 시그네〉가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관의 초대”섹션은 무주산골영화관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위한 식탁〉(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관람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 수상작이다.

“영화랑 놀자”섹션은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로보카폴리와 함께 배우는 소방안전 이야기〉(상영 후 로보카폴리 환경 놀이터 진행)가 진행된다.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을 받아 각 지역에서 기획 제작, 촬영한 영화를 소개하는 “지역영화 특별전”에서는 무주를 무대로 제작된 〈달이지는 밤〉과 무주군민 25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무주산골영화제 1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무주〉가 상영(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진행)된다.



이외에도 관계와 성장, 가족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묶음”에서는 〈코끼리〉, 〈건전지 아빠〉, 〈나쁜 친구〉, 〈어떤 하루〉, 〈엄마의 선물〉을 볼 수 있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김성옥 팀장은 “무주산골영화제에서도 상영했던 작품들을 비롯해 무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패키지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됐다”며 “아이들 손잡고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한 영화관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 작은 영화관 기획전_무주’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무료로 관람(당일 현장 발권, 선착순 입장)할 수 있으며 영화 시간 등 관련 정보는 포털 검색창에 ‘무주산골영화관’을 검색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무주산골영화관(063-322-7053)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조사료유통센터 준공

축산농가 경영난 해소 기여 기대

장수군 조사료유통센터가 23일 준공했다. 조사료유통센터는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556-4번지에 부지 3,819㎡에 연면적 1,382㎡ 규모로 조성돼 사일리지 보관창고, 지게차, 스키드로더, 계량계, 소독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이날 준공식은 최훈식 장수군수, 박용근 도의원, 장정복 군의회 의장, 군의원, 송제근 무진장축협조합장, 무진장축협 임직원, 조사료 연결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사료 유통센터는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유통하는 시설로, 군은 본 시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농가에 연중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잉여 생산 조사료를 전량 구입, 유통비를 절감해 조사료를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수확 전 현장조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생산·유통한다는 방침이다.

송제근 무진장축협조합장은 “조사료 유통센터 준공으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지가 마련됐다”며 “조사료 저장 공간 부족, 조사료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으로 우리군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 토대를 마련했다”며 “수입개방, 사료가격 인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하며 장수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조사료유통센터가 23일 준공했다.

농기계팜, 장수군에 1000만원 상당 콩 적심기 기증

장수군은 23일 농업 및 임업용기계 제조업체인 농기계팜(대표 조경아)으로부터 지속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논콩재배농가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콩 적심기 4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콩 적심기는 순을 쳐 골고루 볕을 쬐게 해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태풍 및 비로 인한 도복 위험을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기계로, 논콩 적심작업 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날 기증된 콩적심기는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관리되며, 논콩재배 위주 읍·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배치돼 임대 기계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경아 ㈜농기계팜 대표는 “농가 분들을 위해 콩 적심기를 기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일 이어진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

진안군은 관내의 청년농업인들이 가진 농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미래 농업 청년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공모 분야는 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으로 5개 분야이다.

공모 신청은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농촌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명씩 선정하고 수상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내년도 젊은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영농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우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노인회,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진안군노인회(회장 구동수)는 진안군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에서 경로당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까지는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집합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읍면노인회 분회장·사무장, 경로당 회장·사무장 500명을 대상으로 읍면분회별로 편성하여 총 4회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회계관리, 경로당 명부 작성 방법, 노인학대 예방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책임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고령사회교육원장 박종혜 강사를 초빙하여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구동수 회장은 “회원 간의 단합에 힘써주길 바라며, 운영비를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사용해 투명한 경로당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상전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려 방문

진안군 상전면(면장 이옥순)은 지난 2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숙소 신연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신연마을 이장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상전면 계절근로자들은 베트남 근로자 19명이 근무하여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큰 시름을 덜게 했다.

상전면은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것은 물론 음료수, 피자 등 간식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숙소를 둘러보며 폭염속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